



1 탄자니아 관광 공식 블로그 운영 개시

주한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관광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탄자니아 공식 블로그' 운영을 개시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개설된 '탄자니아 블로그'에는 탄자니아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비롯해 숙소와 식당 등 관광지 정보가 망라돼 있다. 스웨일라 마수가 주한 탄자니아대사는 "지난 2개월 동안 탄자니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로부터 안전여행 스탬프를 획득한 숙소와 관광지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자니아 방문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의무가 아니며, 별도의 격리 절차나 제출 서류도 없다. 다만 입국 시 열 체크 등 기본적인 건강 검사는 필요하며, 국립공원과 숙소, 레스토랑을 출입할 때는 탄자니아 정부가 규정한 코로나19 행동지침을 따라야 한다.



2 필리핀 엘 니도, 새 슬로건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

필리핀관광청은 팔라완의 아름다운 산호와 다이빙으로 유명한 엘 니도의 새로운 관광 슬로건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Our Safe Haven)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엘 니도는 기존 '친근한 파라다이스(Friendly Paradise)'에서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로 슬로건을 바꿨다. 크리스틴 니콜 림 엘 니도 시의회 의원은 "새로운 관광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 엘 니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임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관광객들이 엘 니도를 제2의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 태국 '외국인 바가지 요금제' 폐지 논의

태국 정부가 관광지 입장료나 숙박 시설 요금과 관련해 꾸준히 논란이 돼 온 '외국인 이중 또는 차등 요금제' 폐지를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고 있는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들의 지갑을 열도록 하려는 구상이다. 피팟 랏차깃쁘라간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인들에게 태국인과 동등한 요금을 받게 할 것을 빠르듯 잔오차 총리에게 제안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이나 유명 사찰 등과 같은 관광지를 방문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 요금' '차등 요금'은 외국인 관광객을 '뽕'으로 아는 태국 관광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4 해운대 5성급 '그랜드 조선 부산' 10월 7일 개장

신세계조선호텔은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5성급 브랜드 '그랜드 조선 부산'의 개장일을 10월 7일로 정하고 사전 예약 판매 중이다. 개장일 상품은 객실만 이용하는 '슈퍼 세이버', 조식이 포함된 '베드&브렉퍼스트', 식음권이 포함된 '모어 투 테이스트' 등 3가지 종류다. 호텔 개장을 기념해 정상가 대비 20%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책정됐다. 그랜드 조선 부산은 신세계조선호텔의 새로운 5성급 브랜드인 '그랜드 조선'(Grand Josun)의 첫 호텔로 기존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을 리모델링해 330실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다.

5 메이필드호텔, 실외 배송로봇 메카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이 LG전자와 협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메이필드호텔은 9월부터 생맥주를 따르는 로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이 생맥주를 주문하면 로봇은 고객 테이블로 이동해 생맥주를 따라주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배송로봇 2대가 호텔 건물 안팎을 오가면서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로봇이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고객 테이블까지 배송하고, 고객이 식사를 마치면 그릇 선반을 퇴식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메이필드호텔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국내 최초로 '실외 배송로봇'을 이용한 언택트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LG전자와 지속해서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 롯데호텔 월드, 스카이브릿지 투어 호캉스 패키지 출시

롯데호텔 월드의 롯데월드타워 최상단 두 개로 갈라진 구조물 사이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는 고공 체험 프로그램인 '스카이브릿지 투어'를 포함한 호텔 패키지 '브릿지 투어 위드 월드'를 출시했다. 스카이브릿지는 롯데월드타워 최상층의 두 개로 갈라진 구조물 사이를 연결한 다리로, 지상 541m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브리지다. 10월 31일까지 투숙할 수 있는 이 패키지는 디럭스 룸 1박, 조식 2인, 전망대 서울스카이 관람과 스카이브릿지 투어 티켓 2인권을 포함해 36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부터다. 호텔 패키지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1 인천~프라하 직항편 재개

9월부터 한국과 체코 간의 직항편 운항이 재개됐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 주 1회 인천~프라하 구간의 직항편 정규 노선을 편성했다. 인천발 항공편은 금요일 낮 12시 45분 인천에서 출발해 프라하에 오후 4시 55분 도착하며, 프라하에서는 토요일 오후 6시 50분 출발해 인천에 오전 11시 50분 도착한다. 체코는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저위험 국가'로 규정, 한국인 단기 체류객과 여행객은 무비자로 체코 입국이 가능하다. 또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에서 증상 검사 외에는 별도의 격리나 코로나19 음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체코관광청 관계자는 "한국인은 대한항공 직항편을 포함, 터키항공, 카타르항공, 에어프랑스, KLM, 에미레이트 항공 등을 이용해 체코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싱가포르 공항, 동남아 4개국 출발 승객 경유 허용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싱가포르 항공(SIA) 그룹 소속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경유할 수 있게 됐다. 경유 대상은 싱가포르 항공과 자회사인 실크 에어 그리고 저비용항공사인 스쿠트 소속 항공기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메단 그리고 수라바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페낭, 쿠칭, 이포에서 출발하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해 각각 경유가 허용됐다.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상하이, 광저우, 충칭, 홍콩 그리고 일본의 도쿄(나리타 국제공항)와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SIA 그룹 소속 항공기 탑승객들도 경유가 가능하다.



3 캐세이퍼시픽, 한국어 온라인 상담 서비스 개시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한국 고객을 위한 실시간 한국어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라이브 채팅'을 새롭게 선보였다. 라이브 채팅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고객들이 질문하면, 캐세이퍼시픽 한국 지사의 예약부 직원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들은 항공편 예약, 운항 정보, 탑승 시간 등 항공 이용 모든 과정의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국어 안내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영어와 중국어 안내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4 진에어, 김포~포항 등 국내선 5개 신규노선 동시 취항

진에어가 김포~포항을 비롯한 국내선 5개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신규 취항한 노선은 김포~포항 노선 외에 포항~제주, 김포~대구, 김포~울산, 울산~제주 노선이다. 이번 취항으로 진에어는 총 13개의 국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다. 진에어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김포~부산, 김포~광주, 김포~여수 등의 노선에 정기 취항한 바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내선 다변화로 지역민의 교통 편의가 증대되고 지방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운임과 편리한 스케줄 편성으로 경쟁력 있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 티웨이항공, 대구~엔지 노선 운항 재개...국제선 섰다운 5개월만

티웨이항공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을 섰다운한 지 5개월 만에 대구~엔지(延吉) 노선의 운항을 지난달 재개했다. 코로나19 이후 티웨이항공의 첫 국제선 정기노선 재취항이다. 티웨이항공은 앞서 인천~호찌민, 인천~홍콩 2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현지 코로나 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결국 미룬 바 있다. 이번 재운항으로 중국 엔지 노선은 현재 티웨이항공의 대구~엔지 노선이 유일하다.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엔지는 비즈니스 방문, 학생 교류 등 양국 간 수요가 많은 곳이다.



6 강릉에서 산타마을까지 한 번에...동해산타열차 개통

한국철도(코레일)는 강원 강릉에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산타마을까지 한 번에 가는 동해산타열차 운항에 돌입했다. 동해산타열차는 매주 수~일요일 강릉역~분천역을 1회 왕복한다. 열차는 강릉역을 출발해 묵호, 정동진, 동해, 신기, 도계, 동백산, 철암, 석포, 승부, 양원, 비동역을 거쳐 분천역까지 약 2시간 30분간 운행한다. 동해산타열차는 편백과 라벤더 향을 담은 일반실과 칸막이가 설치된 가족실로 구성돼 있다. 2호 차에는 100인치가량의 가상화면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커피콩 빵 등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운임은 성인 기준으로 강릉역 출발 1만4천600원, 동해역 출발은 9천700원이다. 한병근 한국철도 강원본부장은 "강원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해산타열차가 동해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